

e-ISSN 2951-259X

새론상담심리교육연구

The Journal of Saeron Counseling, Psychology and Education

2024

Vol.3 No.4

새론 Saeron

목 차

제3권 제4호 2024년 12월

경로당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자들의 학습몰입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학습참여동기와 희망의 직렬 이중 매개효과 ····· 김진원, 안수인, 이창식 ····· 1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지지와 교사지지의 이중매개효과 ····· 김해란, 문성애, 김진우 ····· 11

대학생의 인권의식과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에서 성장마인드셋의 매개효과 ··· 서다혜 ····· 21

새론상담심리교육연구
The Journal of Saeron Counseling, Psychology and Education
Vol. 3, No. 4, pp. 01-10 https://doi.org/10.23339/srj.2024.3.4.1

경로당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자들의 학습몰입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학습참여동기와 희망의 직렬 이중 매개효과

김진원[1], 안수인[2], 이창식[3]

[1]강사, 청소년상담교육학과, 청운대학교, gulsem.fish@gmail.com
[2]특임교수, 열린사이버대학교, asi669@naver.com
[3]교수, 사회복지학과, 한서대학교, lee1246@hanmail.net

The Impact of Learning Engagement in Senior Community Education Programs on Successful Aging: The Serial Double Mediating Effects of Learning Motivation and Hope

Jinwon Kim[1], Suin An[2], Changseek Lee[3]

[1]Lecturer, Dept. of Youth Counseling Education, Chungwoon University, gulsem.fish@gmail.com
[2]Visiting Professor, Beauty Health Design, Open Cyber University, asi669@naver.com
[3]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Hanseo University, lee1246@hanmail.net

초 록: 본 연구는 경로당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참여동기와 희망이 학습몰입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이중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고 성공적 노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충남 S시의 경로당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는 230명이었으나 결측 문항이 있는 인원 22명을 제외하고 총 208명의 데이터를 분석,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PC+ Win. ver. 25.0과 SPSS PROCESS macro ver. 4.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활용한 통계기법은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이중 매개효과분석이었다. 연구결과는 첫째, 경로당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의 학습몰입, 학습참여동기, 희망, 성공적 노화의 상관관계는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학습참여동기와 희망은 경로당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의 학습몰입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직렬 이중 매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로당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핵심어: 경로당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몰입, 성공적 노화, 학습참여동기, 희망, 이중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whether learning motivation and hope serve as serial double media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engagement and successful aging among participants in lifelong education programs at senior community centers and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promoting successful aging. The study subjects were selected through random sampling from participants in lifelong education programs at senior community centers in S city, Chungnam province,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PC+ Win. ver. 25.0 and SPSS PROCESS macro ver. 4.2. The statistical methods employed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erial double mediat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s among learning engagement, learning motivation, hope, and successful aging of participants in lifelong education programs at senior community center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all variables. Second, learning motivation and hope served as serial double media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engagement and successful aging among participants in lifelong education programs at senior community center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results can be utilized as a new model to promote successful aging among participants in lifelong education programs at senior community centers.

Keywords: Senior Center Lifelong Education Program, Learning Engagement, Successful Aging, Learning Participation Motivation, Hope, Dual Mediation Effect

Received 27 August 2024, Revised 23 September 2024
Accepted 14 October 2024
Corresponding Author: Changseek Lee
(Hanseo Univercity)
Email:
e-ISSN: 2951-259X

© Saeron Counseling, Psychology and Education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Vol. 3, No. 4, pp. 01-10 https://doi.org/10.23339/srj.2024.3.4.1

1. 서론

노인여가복지 시스템 구축은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노년기가 길어진 현대사회에서, 사회적・정신적・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노화하는 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50・60대 신중년 세대의 노년기 진입이 현실화에 따른 노년기의 다양성과 건강 수명연장에 따른 노년기 기간의 증가는 노년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UN고령화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고령화사회(7~14%), 고령사회(14% 이상), 초고령사회(20%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1]. 2024년 12월,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비율은 24.9%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2].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 속에서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은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체적・사회적 역할의 변화로 인해 무위나 고독감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여느 생애주기보다 더욱 강조된다.

또한, 의료기술 발달과 생활환경 향상에 따라 기대수명이 연장되며 2020년 83.5세에서 2023년 남성은 84.1세, 여성은 90.8세로 증가하면서, 퇴직 이후 20~30년 동안 노인으로 살아가야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또한, 전통적 가족주의가 약화되고 1~2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 새로운 사회구조와 규범이 자리 잡으면서, 부모 부양의 책임이 가족에서 사회와 국가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경로당은 대표적인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로 2023년 기준으로 전국 68,792개소[2], 충청남도에 5,696개소 시군별 평균 380개소가[3] 자리해 이용 면에서 가장 접근성이 높은 시설로 평가되고 있다. 노인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경로당을 지역 내 주요 복지인프라로 활용하여 노인복지・여가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4][5].

노인들은 자신의 삶의 경험과 인생 환경이 유사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심리적 보상을 얻고, 경로당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여성노인들은 전시, 공연과 같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존재감을 인식하며, 가족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면서 학습주체로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6].

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로당 운영의 목표는 건강관리・운동, 교육, 여가,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 이는 경로당을 단순한 쉼터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여가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공간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의 삶의 만족과 복지・여가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7].

기존의 경로당 관련 연구[4-7]은 주로 프로그램, 삶의 만족도, 이용 만족도, 이용형태 등 단편적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에 그치고 있어 다양한 변인들을 검토하여 향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변인을 검토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 학습자들의 학습몰입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학습참여동기와 희망의 이중 매개효과에 대해 연구를 통해 지역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향상시킬 실천적・정책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학습몰입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

성공적 노화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등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적 노화를 의미하며, 노인들의 현재상황을 효율성을 높이며 최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공적 노화는 긍정적 노화, 건강한 노화, 효과적 노화라고 표현하기도 한다[8]. 노년기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는 노인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인생에 대한 만족감으로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노년기의 성공적 노화를 위해 학습의 중요성과 긍정적 영향력과의 관계를 증명한 다수의 연구가 있다[9].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은 학습에 참여한 이후 신체적·정신적 변화뿐 아니라 가정생활 및 사회참여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는, 노년기의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다양한 학습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몰입은 현재상태에 집중하며 다른 일을 고민하지 않으며 학습과정에 몰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몰입은 인간 내적요인으로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경영학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다[10]. 또한 노년기의 학습몰입이 높을수록 행복감, 생활만족, 심리적 안녕 등 삶의 질을 나타내는 모든 변인에서 높게 나타났다[11]. 노인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12]와 여성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이 삶의 질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13][14]를 비롯해 성인학습 프로그램이 삶의 질과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15][16]. 노년기의 학습몰입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를 볼 때 학습몰입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 학습참여동기와 희망의 이중 매개역할

2.2.1 학습참여동기의 매개역할

특정 학습목표를 향해 학습행동을 하게 되는 학습자의 심리적 상태를 학습참여동기라고 한다[17]. 이는 학습자가 학습 내용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학습 활동을 주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심리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18]. 또한, 학습자가 특정목적을 위해 행동하게 하는 근원이며, 목표설정 및 달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19].

학습참여동기는 과제몰입을 증진과 내재동기를 촉진 시키며 학습자의 교육참여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20]. 즉, 학습참여동기가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쉽게 발현되며 이는 보다 행복한 학습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21].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에서 학습참여동기는 노인들의 복지와 삶의 만족도, 행복감과 삶의 질, 우울증 및 부정적 영향의 감소 등와 관한 연구[22]와 노인교육프로그램은 오락이나 여가차원을 벗어나 정보제공과 사회적응, 자아실현 등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참여임을 입증한 연구[23]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기존의 학습 참여 동기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학습성과, 학습참여동기, 학습몰입과 학업성취도 등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다양한 변인을 다루었다[24]. 또한, 기업에서 운영되는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에서 학습참여동기는 직무몰입, 문제해결능력, 참여만족도 및 동기, 학습구성요인 및 자기효능감 등으로 제시되었다[25].

학습몰입, 성공적 노화와의 매개역할에 관한 유사연구는 다소 부족하지만 평생교육 현장에서의 기존연구를 종합해 볼 때, 학습참여동기는 학습몰입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결과값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몰입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학습참여동기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2.2 희망의 매개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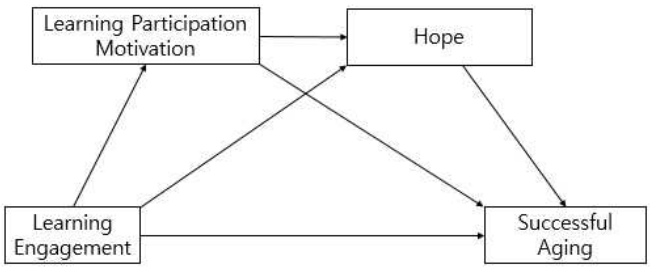
목표달성 경로와 목표를 도달하고자 하는 의지에 근거한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한 상태를 희망이라고 한다[26]. 희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 또는 바람, 실현가능성으로 좌절보다 긍정적 목표를 위해 방법을 모색하고 대처하는 심리적 변인으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27]. 이는, 개인의 좌절이나 역경을 벗어나 개인의 긍정적 행동과 생각을 제공하는 인지동기 상태로 좌절이나 역경에 대하여 극복하며 해결행동을 찾는 행동의 촉매제로 역할을 한다[28]. 또한, 희망을 동기적 에너지를 통해 구체적 행동경로를 거쳐 목표에 도달하는 개인적 기질 또는 특징이라고 하였다[29]. 희망의 구성요인으로 경로요인과 동기요인을 제안하고, 희망을 목표추구 과정으로 정의하여 희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제시했다[30].

문해교육 참여 노인들의 자아통합감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경로에서 희망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입증한 연구[31]와 노인의 신체이미지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32]를 통해 희망의 매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희망은 학교생활의 적응력과 대인관계에서의 민감성 및 공감, 사회적지지 등 다양한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3]. 기존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성인 학습자의 학습 몰입과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에서 희망은 중요한 매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몰입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경로당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자들의 학습몰입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학습참여동기와 희망의 이중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34]가 제시한 SPSS PROCESS macro model 6을 적용하여 <그림 1>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학습몰입, 성공적 노화, 학습참여동기 및 희망의 변인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 충남 S시의 경로당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유의표집을 진행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230명이었으나 결측 문항이 있는 인원 22명을 제외하고 총 208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https://doi.org/10.23339/srj.2024.3.4.1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100%로 나타났고, 연령은 80세 이상 59.6%로 가장 많았고,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보통이다 30.8%, 대체로 건강하지 않다 28.8%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거형태는 1인 가구 43.3%, 2인 가구 31.3%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로당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시간은 10년 이상이 6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3 측정도구

3.3.1 학습몰입

학습몰입의 연구도구는 김정영[35]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13개의 설문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에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의 학습몰입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680이었다.

3.3.2 성공적 노화

성공적 노화의 연구도구는 김동배[36]의 연구를 기초로 성공적 노화 분류를 근거로 자기수용, 타인수용, 자녀에 대한 만족, 자기완성 지향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20개의 설문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에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의 성공적 노화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731이었다.

3.3.3 학습참여동기

학습참여동기의 연구도구는 이소영[37]의 연구를 기초로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참여동기에 적합한 문항으로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13개의 설문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에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의 학습참여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721이었다.

3.3.4 희망

희망의 연구도구는 최유희 외[38]의 연구에서 수정 보완된 척도를 사용하였고, 총 8개의 설문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에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의 희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615이었다.

3.3.5 통제변수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동거형태, 이용기간, 이용횟수, 이용시간을 조사하였으며, 매개 및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연령을 매개효과 분석시 통제하였다.

 https://doi.org/10.23339/srj.2024.3.4.1

4. 연구결과

4.1 변인 간 상관관계

경로당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자의 학습몰입과 성공적 노화, 학습참여동기 및 희망의 관계가 서로 관련 있는지 살펴보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경로당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자의 학습몰입과 성공적 노화, 학습참여동기, 희망의 상관 정도와 평균, 표준편차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학습몰입과 성공적 노화(r=.326, p<.01), 학습참여동기(r=.298, p<.01), 희망(r=.367, p<.01)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공적 노화와 학습참여동기(r=.403, p<.01), 희망(r=.324, p<.01) 간의 관계에서도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참여동기와 희망(r=.301, p<.01) 간에서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구대상자인 경로당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자의 학습몰입의 전체 점수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44이었고, 성공적 노화는 평균 3.51, 학습참여동기는 평균 3.25, 희망은 평균 3.72로 나타났다.

<표 1>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1	2	3	4
1. Learning Engagement	1			
2.. Successful Aging	.326**	1		
3. Learning Participation Motivation	.298**	.403**	1	
4. Hope	.367**	.324**	.301**	1
M	3.44	3.51	3.25	3.72
SD	.368	.425	.668	.482

**p<.01

4.2 학습몰입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학습참여동기와 희망의 직렬 이중매개효과

학습몰입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학습참여동기와 희망이 직렬 이중매개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의 6번 모델을 적용하였다.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고, 샘플 수는 5,000개로 지정하였으며, 연령과 교육수준은 통제하였다. 분석결과는 <그림 2>와 <표 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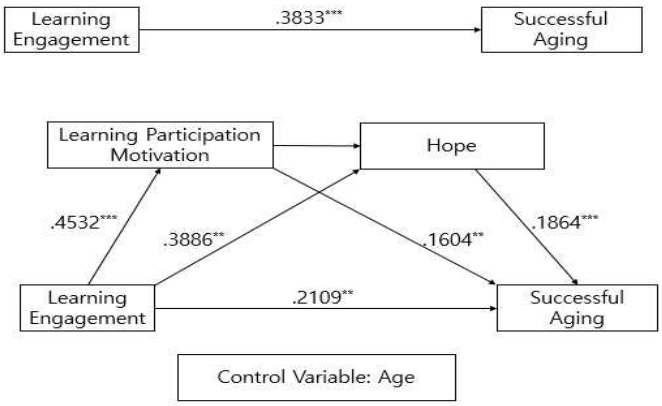
첫 번째 매개변수 모형에서 학습몰입은 학습참여동기(M1)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β=.4532, p<.001). 두 번째 매개변수 모형에서 학습몰입은 희망(M2)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β=.3886, p<.01), 학습참여동기(M1)은 희망(M2)에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β=.3193, p<.01).

종속변수 모형에서 학습몰입은 성공적 노화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β=.2109, p<.01), 학습참여동기(M1)는 성공적 노화에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β=.1604, p<.01), 희망(M2)은 성공적 노화에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β=.1868, p<.001). 즉, 학습몰입은 학습참여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학습참여동기는 희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희망은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 학습참여동기와 희망이 학습몰입과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에서 직렬 이중매개하였다.

학습참여동기와 희망의 직렬 이중매개효과를 부트스트랩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이중매개효과는

 https://doi.org/10.23339/srj.2024.3.4.1

.0270으로 부트스트랩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미하였다(.0038 ~ .0945). 즉, 학습참여동기와 희망은 학습몰입과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에서 직렬 이중매개하였다.



<그림 2> 학습참여동기와 희망의 이중 매개효과 통계모형

<표 2> 이중 매개효과 분석 결과

Category		Mediating Variable Model 1 (DV: Learning Participation Motivation)			Mediation Model 2 (DV: Hope)			Mediating Variable Model (DV: Learning Participation Motivation)		
		Coeffect	SE	t value	Coeffect	SE	t value	Coeffect	SE	t value
Constant		1.790	.322	5.562	.907	.479	1.896	1.745	.293	5.956
Independent	Learning Engagement	.453	.086	5.297***	.389	.126	3.074**	.211	.079	2.687**
Mediator1	Learning Participation Motivation	-	-	-	.319	.097	3.292**	.160	.060	2.655**
Mediator2	Hope							.187	.043	4.385***
Control Variable	Age	.075	.039	1.918	-.085	.055	-1.563	-.036	.033	-1.091
	Education	.056	.039	1.436	.0600	.054	1.105	-.022	.033	-.672
Model Summary	R^2	.389			.398			.487		
	F	12.140***			9.545***			12.589***		

Category		Effect	SE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Total Effect		.383	.077	.231	.536
Direct Effect		.211	.079	.056	.366
Indirect Effect		.172	.043	.091	.262
Indirect Effect	Learning Engagement → Learning Participation Motivation → Successful Aging	.073	.034	-.002	.136
	Learning Engagement → Hope → Successful Aging	.073	.028	.021	.132
	Learning Engagement → Learning Participation Motivation → Hope → Successful Aging	.027	.024	.004	.095

** p<.01, *** p<.001
*LLCI=Bootstrap Lower Bound
**ULCI=Bootstrap Upper Bound

 https://doi.org/10.23339/srj.2024.3.4.1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경로당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몰입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참여동기와 희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로당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의 학습몰입, 학습참여동기, 희망, 성공적 노화의 상관관계는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학습몰입은 학습참여동기, 희망 및 성공적 노화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로당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학습참여동기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학습참여동기와 희망이 성공적 노화를 높여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로당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학습몰입이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학습참여동기와 희망이 이중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학습몰입을 경험한 경로당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학습자들은 성공적 노화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학습참여동기와 희망을 매개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조사대상을 충남S시로 제한하여 전국의 경로당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자로 일반화 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의 표본으로 확대하여 보다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른 비교 분석까지 확장할 필요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학습참여동기와 희망이라는 매개변인을 사용하여 경로당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의 학습몰입과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지만 주요 변인들 간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변인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경로당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그들의 언어로 상세하게 표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학습참여동기와 희망의 중요한 역할을 규명하였고, 제언으로 학습참여동기와 희망의 교육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추후 연구를 통해 전문적인 강사의 구체적인 교수학습방법과 노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 기반의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 참여의 장벽을 낮추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25). Retrieved from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d/

[2] National Statistical Portal of Korea. (2025). Retrieved from https://kosis.kr/index/index.do

[3] Chungnam Integrated Welfare. (2025). Retrieved from https://www.chungnam.go.kr/welfare.do

[4] Pyo, M. H. (2017). Needs and satisfaction of elderly users in senior welfare centers. (Master's thesis). Hanseo University.

[5] Ko, K. S. (2018). The impact of satisfaction with senior centers 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Doctoral dissertation). Dongbang Culture University.

[6] Ryu, M. H. (2018). 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elderly women participating in lifelong education programs at senior centers.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7] Kang, E. M. (2019). The effect of satisfaction with senior center programs on leisure welfare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rvice quality. (Doctoral dissertation).

Dongbang Culture University.

[8] Angus, J., & Reeve, P. (2006). Ageism: A threat to "aging well"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25(2), 137-152.

[9] Kim, K. E., Choi, R. Y., & Park, I. J. (2015). A study on the happiness of adult learners: Focusing on the "blooming of life" perspective.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Research, 23(3), 87-109. https://doi.org/10.18230/tjye.2015.23.3.87

[10] Kong, K. B. (2023). The effect of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motivation of baby boomers on successful aging: The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immersion and self-efficacy. (Doctoral dissert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11] Lee, H. J., Koo, H. K., & Kim, S. Y. (2015). The effect of participation motivation in lifelong education services on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happiness: Focusing on the senior welfare centers in Cheongju. Journal of Global Management, 12(2), 315-338. https://doi.org/10.17092/jibr.2015.12.2.315

[12] Kim, K. Y., & Kim, Y. M. (2016). A study on the effect of senior welfare center programs on quality of life: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support.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16(4), 37-52.

[13] Park, E. H. (2017). The effect of lifelong learning on the quality of life of female adult learners. (Master'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14] Yoon, H. R. (2019). The effect of non-formal education on the quality of life of elderly women.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15] Kwon, I. T. (2013). The effect of participation motivation of adult learners on program satisfaction and happiness: Focusing on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program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1(3), 139-164.

[16] Han, S. J. (2016). The effect of educational attainment, learning attitude, and participation in non-formal lifelong education on the quality of life of adult learners. 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6(2), 379-394. https://doi.org/10.35873/ajmahs.2016.6.2.039

[17] Yu, K. H. (2009). The effect of self-determination and intrinsic motivation on creativity. Journal of Creative Education Research, 9(2), 69-88.

[18] Lee, C. G. (2020). The effect of learning participation motivation in church family ministry lifelong education programs on servant leadership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Doctoral dissertation). Baekseok University.

[19] Jang, H. Y. (2016). The effect of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motivation,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on subjective happiness of middle-aged and older adults.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20] Park, Y. S.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long learning and happiness: Focusing on self-esteem and flow. HRD Research, 12(4), 119-136.

[21] Cho, E. H. (2023). A study on the effect of learning participation motivation, learning immersion, and self-awareness on happiness of adult learners: Application of the PERMA model. (Doctoral dissertation). Yeungnam University.

[22] Ryff, C. D. (1980). Beyond Ponce de Leon and life satisfaction: New directions in quest of successful aging.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2, 35-55.

[23] Lee, E. K., & Kim, N. J. (2000). Development directions of elderly education for improving quality

of life. Journal of Korean Family Welfare, 5(1), 85-103.

[24] Jeong, M. S., & Lee, H. S. (2017). The effect of participation motivation in vocational education programs on the intention to continue participation among middle-aged female learner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educational satisfaction.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3(2), 109-133.

[25] Han, S. G., & Kim, Y. C. (2012). Analysis of interactions among components of action learning programs: Focusing on perceptions of learning motivation and job problem-solving ability. Journal of Adult Education Research, 15(2), 1-25. https://doi.org/10.22955/ace.15.2.201205.1

[26] Luthans, F., Avey, J. B., Avolio, B. J., Norman, S. M., & Combs, G. M. (2006). Psychological capital development: Toward a micro-interven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7(3), 387-393.

[27] Cho, H. J. (2010). The effect of hope on life stress, psychopathology, and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3), 839-852. https://doi.org/10.15842/kjcp.2010.29.3.011

[28] Park, S. Y. (2013). The effect of depression and positive emotions and family support on hope in low-income families: Focusing on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roles. Journal of Korean Family Social Welfare, 40, 189-214. https://doi.org/10.16975/kjfsw.2013..40.007

[29] Snyder, C. R. (1994). The psychology of hope: You can get here from there. New York: The Free Press.

[30] Snyder, C. R., Harris, C., Anderson, J. R., Holleran, S. A., Irving, L. M., Sigmon, S. T., Yoshinobu, L., Gibb, J., Langelle, C., & Harney, P. (1991).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4), 570-585.

[31] Kim, J. W., An, S. I., & Han, J. R. (2023). The effect of ego integrity on successful aging among elderly participating in literacy educati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isolation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hope.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Education, 9(2), 72-90.

[32] Hwang, Y. K., & Lee, C. S. (2020).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growth mindset and hop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image and successful aging in the elderly.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18(1), 87-96.

[33] Kim, C. S. (2008). The effect of self-efficacy, hope, and career maturity on school adapt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34]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35] Kim, J. Y. (2013). The effect of lifelong learning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uccessful aging in the elderly.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36] Kim, D. B. (200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successful aging scale for Korean elderl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0(1), 211-231. https://doi.org/10.20970/kasw.2008.60.1.009

[37] Lee, S. Y. (2015). The causal structural effects of learning motivation and autonomy on job creativity and learning satisfaction in vocational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38] Choi, Y. H., Lee, D. K., & Lee, H. K. (2008).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Snyder's Hope Scal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2(2), 1-16.

새론상담심리교육연구
The Journal of Saeron Counseling, Psychology and Education
Vol. 3, No. 4, pp. 11-20 https://doi.org/10.23339/srj.2024.3.4.11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지지와 교사지지의 이중매개효과

김해란[1], 문성애[2], 김진우[3]

[1]조교수, 한중언어문화학과, 한서대학교, hailan8415@hanseo.ac.kr
[2]박사과정, 한중언어문화학과, 한서대학교, auburn77@naver.com
[3]교수, 한중언어문화학과, 한서대학교, kjw64@hanseo.ac.kr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Peer Support and Teacher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martphone Addiction and School Adaptation

Hailan Kim[1], Sungae Mun[2], Jinwoo Kim[3]

[1]Assistant Professor, Dep. of Korean & Chinese Culture, Hanseo University, hailan8415@hanseo.ac.kr
[2]Ph.D. student, Dep. of Korean & Chinese Culture, Hanseo University, auburn77@naver.com
[3]Professor, Dep. of Korean & Chinese Culture, Hanseo University, kjw64@hanseo.ac.kr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지지와 교사지지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 제14차 조사 데이터 중에서 청소년 1,326명을 분석하였다. SPSS Win 26.0 version을 활용하여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고, SPSS PROCESS macro 4.2 version 6번 모델을 이용하여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친구지지, 교사지지, 학교적응과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친구와 교사로부터의 지지가 낮아지고, 학교적응 수준도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친구지지와 교사지지를 경로해서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쳤다. 즉 친구지지와 교사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관계를 이중 매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실천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학교적응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스마트폰 중독, 친구지지, 교사지지, 학교적응, 이중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peer support and teacher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school adaptation among adolescents. For this purpose, data from the 14th wave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KCYPS) were analyzed, including 1,326 adolescents. Reliabilit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Win 26.0, and dual mediating effects were analyzed with Model 6 of the SPSS PROCESS macro 4.2. The results revealed that first, the study found that adolescent smartphone addiction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peer support, teacher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Specifically, higher levels of smartphone addiction were associated with lower levels of support from friends and teachers, as well as decreased school adjustment. second, smartphone addiction indirectly influenced school adaptation through peer support and teacher

Keywords: Smartphone Addiction, Peer Support, Teacher Support, School Adaptation, Dual Mediating Effects

Received 9 October 2024, Revised 22 November 2024
Accepted 28 November 2024
Corresponding Author: Jinwoo Kim
(Hanseo University)
Email: kjw64@hanseo.ac.kr
e-ISSN: 2951-259X

© Saeron Counseling, Psychology and Education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 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https://doi.org/10.23339/srj.2024.3.4.11

1. 서론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의 98%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61.5%가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한다[1]. 2023년 스마트폰과 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0~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0.1%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2]. 이러한 통계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단순히 기기 사용의 과다를 넘어서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은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 저하, 대인관계 문제, 정서적 불안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 4].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 공부, 학교친구 관계, 교사와의 관계, 전반적인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5, 6].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써 가상세계에 집착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위축,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 학업에 부정적 영향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5, 7]. 특히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적응은 청소년기의 핵심적인 발달과업 중 하나로, 단순히 학업 성취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적응은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학교규칙 준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8, 9]. 이는 학교적응이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미래의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들은 스마트폰 중독과 학교적응 간의 부정적 관계를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12]. 이는 스마트폰 중독이 학업 수행 능력 저하, 교우관계 악화, 학교규칙 위반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학교생활 적응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관계를 완화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지지, 특히 친구지지와 교사지지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13, 14]. 청소년 시기는 신체적 성장과 함께 사회적·정신적으로도 급격한 변화와 발달을 경험하게 된다. 이 시기 청소년들은 독립심 등의 발달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고 또래집단에 참여하는 일이 증가하면서 친구와 교사에게서 심리적 지지를 얻으며 걱정과 문제가 생겼을 경우 친구와 교사에게 의논하는 경우가 많아진다[15]. 친구관계는 스마트폰 과의존과 공격성, 충동성에 통제효과가 있고, 반 친구들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이나 SNS에서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따돌리는 행위를 하는 스마트폰 따돌림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16]. 스마트폰의 노출시간이 많음에 따라 또래들과 관계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소통하려 한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중독으로 유도하는 요소와 신체적 문제를 보고하였다. 청소년들은 또래들끼리 안정감과 우정을 추구한다고 보고하였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생겨난 이후 대인관계에 있어서 친구와의 만남, 대화, 놀이가 실제 현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가상 세계를 이용하는 현상이 많아졌다[17, 18]. 종합해서 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성인에 비해 자기 통제력이 낮고 새로운 매체를 적극적으로 쉽게 받아들이는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이 친구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한편으로는 또래와의 소통과 유대감 형성에 도움을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중독과 실제 대면 관계의 감소, 사이버 따돌림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청소년은 학교생활에서 많은 시간과 활동을 하면서 친구와 교사의 상호작용이 확대된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인정보다는 친구와 교사의 승인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친구와 교사의 영향력이 커진다[19]. 선행연구에서는 친구지지가 교사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관련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형성한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는 교사와의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친구들로부터 받는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며, 이는 교사와의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19, 21].

또한 교사와의 관계 또한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20, 21].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청소년들은 학교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와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더 자유롭게 표현하며, 학습활동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학교적응을 더 잘 한다[19].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적응도가 높아지며, 교사관계 변인이 가장 영향력 있다[22]. 교사는 청소년이 맺고 있는 다양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지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 특히 대부분의 시간을 같은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보내는 청소년에게 학교적응은 교사와의 관계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교사와 학생의 친밀감은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을 방지하고 학교에서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인간관계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성인이 되어서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23]. 따라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지지와 교사지지가 이중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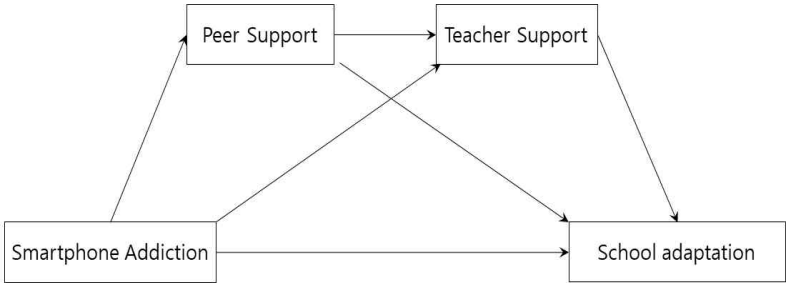
또한 교사와의 관계 또한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20, 21].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청소년들은 학교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와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더 자유롭게 표현하며, 학습활동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학교적응을 더 잘 한다[19].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적응도가 높아지며, 교사관계 변인이 가장 영향력 있다[22]. 교사는 청소년이 맺고 있는 다양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지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 특히 대부분의 시간을 같은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보내는 청소년에게 학교적응은 교사와의 관계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교사와 학생의 친밀감은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을 방지하고 학교에서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인간관계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성인이 되어서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23]. 따라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지지와 교사지지가 이중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지지와 교사지지의 이중매개효과를 가정한 모델이다<그림 1>.

 https://doi.org/10.23339/srj.2024.3.4.11



<그림 1> 이중매개 효과 연구모델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에서는 2021년에 한국아동패널에서 실시한 제14차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1,326명의 만 13~15세 청소년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생 출생아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동일한 패널아동과 가구에 대해 조사하는 종단연구이다. 한국아동패널의 표본추출을 위해 두 단계를 거쳤으며 1단계는 의료 기관 추출, 2단계는 신생아 가구 추출을 통해 조사 참여 의사를 밝힌 산모를 대상으로 신생아 가구의 명부를 작성하였다. 이후 예비표본 명부에 포함된 신생아 가구에 참여 의사를 재확인하여 최종적으로 패널을 구축하였다. 패널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사망, 이사, 가족구조 변경, 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표본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 표본 대상자의 유지율은 해당 조사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2008년(1차)부터 2021년도(14차)의 조사의 경우 90% 이상의 유지율을 보였다.

2.3 측정도구

2.3.1 독립변수: 스마트폰 중독

독립변수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는 신광우[24]개발한 척도이다.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등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8번, 10번, 13번 문항을 역 코딩하여 분석하였으며, 4점 리커트형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 록 스마트폰 중독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40이다.

2.3.2 매개변수1: 친구지지

매개변수 친구지지는 김미숙[25] 이 개발한 척도이다. ‘내 친구들은 내가 힘들 때 따뜻하게 위로해 준다’, ‘내 친구들은 내가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준다’, ‘내 친구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 등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들이 많이 지지해 주고 즐거운 분위기를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29이다.

2.3.3 매개변수2: 교사지지

매개변수 교사지지는 김미숙[26]이 개발한 척도이다. ‘선생님은 내가 무엇을 만들면 관심을

가지신다’, ‘선생님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여러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선생님은 나를 믿어 주신다’ 등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선생님이 많이 지지해 주고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09이다.

2.3.4 종속변수: 학교적응

종속변수 학교적응은 중학교 이상 대상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으로 적용되며 이규미[26]가 개발한 척도로 ‘나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학습내용을 잘 익힐 수 있다’등 총 3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942이다.

2.4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만 13세~15세 청소년으로 남학생이 51.1%, 여학생이 48.9%로 남학생의 수가 조금 많았다. 98.1%의 청소년이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미디어 기기 사용 시간은 하루 사용 시간이 3시간 미만은 11.5%, 3시간에서 5시간 미만은 26.9%, 5시간에서 9시간 사용은 38.4%, 9시간 이상 사용은 22.3% 차지한다.

2.5 분석방법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지지와 친구지지의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전 주요 변수의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교사지지와 친구지지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7]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 4.0 ver.(6번 모델)을 적용하였고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지정하고 신뢰구간은 95.0%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수의 일반적 경향 및 변수 간 상관관계

연구모델을 분석하기 전 주요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표 1>. 스마트폰 중독은 4점 만점에 1.959점으로 중앙값 2.5점보다 낮은 수준이고, 친구지지는 5점 만점에 3.849점, 교사지지는 5점 만점에 3.665점, 학교적응도 5점 만점에 3.861점으로 모두 중앙값 3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주요 변수의 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의 절댓값은 .011에서 .393까지이고, 첨도의 절댓값은 .210에서 .501으로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도와 첨도를 통한 정규분포성에 대한 판단은 Kline[28]의 기준을 사용하였다.

<표 1> 주요 변수의 일반적 경향

Variable	M(SD)		Skewness		Kurtosis	
	M	SD	Statistics	S.E	Statistics	S.E

 https://doi.org/10.23339/srj.2024.3.4.11

Smartphone Addiction	1.959	.402	.011	.067	.312	.134
PeerSupport	3.849	.720	-.393	.067	.310	.134
Teacher Support	3.665	.701	-.285	.067	.501	.134
School adaptation	3.861	.509	-.155	.067	.210	.134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지지와 친구지지의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전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종속변수 학교적응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스마트폰 중독이 심할수록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보이고,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고 있었다<표 1>. 상관계수인 r계수를 보면 -.308에서 .688까지로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었다.

<표 2> 변수 간 상관관계

Variable	1. Smartphone Addiction	2. Peer Support	3. Teacher Support	4. School adaptation
1. Smartphone Addiction	1			
2. Peer Support	-.220***	1		
3. Teacher Support	-.184***	.561***	1	
4. School adaptation	-.308***	.677***	.688***	1

***p<.001

3.2 친구지지와 교사지지의 이중매개효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지지와 교사지지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의 model 6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표 3><표 4><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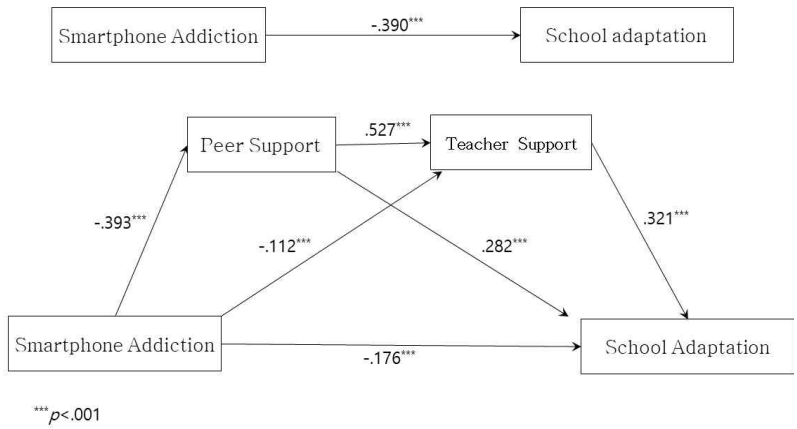
경로 별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하였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친구지지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Coeffect=-.393, p<.001), 친구지지는 교사지지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Coeffect=.657, p<.001), 교사지지는 학교적응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쳐서(Coeffect=.321, p<.001), 친구지지와 교사지지는 스마트폰 중독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스마트폰 중독이 심할수록 친구지지가 낮고,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교사지지가 높고,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Coeffect=-.390, p<.001), 친구지지와 교사지지가 추가되었을 때 (Coeffect=-.176, p<.001)으로 감소하여 스마트폰 중독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와 교사지지가 부분적 이중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 친구지지와 교사지지의 이중매개 효과

Variable	Coeffect	SE	T value	p	LLCI	ULCI
Mediating variable model 1(DV: Peer Support)						
Constant	4.619	.096	47.687	.000	4.429	4.809
Smartphone Addiction	-.393	.048	-8.1243	.000	-.488	-.298
R^2=.0484, F=66.0037, p=.000						
Mediating variable model 2(DV: Teacher Support)						
Constant	1.858	.132	14.043	.000	1.598	2.117
Smartphone Addiction	-.112	.040	-2.752	.000	-.192	-.0323

Variable	Coeffect	SE	T value	p	LLCI	ULCI
Peer Support	.527	.022	23.065	.000	.482	.571
R^2=.314, F=298.168, p=.000						
Dependent variable model (DV: School Adaptation)						
Constant	1.942	.077	25.086	.000	1.790	2.094
Smartphone Addiction	-.176	.022	-7.873	.000	-.219	-.132
Peer Support	.282	.014	19.106	.000	.2536	.3116
Teacher Support	.321	.015	21.227	.000	.291	.350
R^2=.616, F=696.079, p=.000						



<그림 2> 이중매개효과 통계모형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와 교사지지의 이중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지정하고 신뢰구간은 95.0%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스마트폰 중독→친구지지→교사지지→학교적응 간 경로에서 친구지지와 교사지지의 이중매개효과 값 -.066은 부트스트랩 하한 값 -.085와 상한 값 -.048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구지지와 교사지지는 스마트폰 중독과 학교적응 간의 이중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표 4> 친구지지와 교사지지의 이중매개 효과 검증

		Effect	SE	LLCI	ULCI
Total effect		-.390	.033	-.455	-.324
Direct effect		-.176	.022	-.219	-.132
Indirect effect	Smartphone Addiction → Peer Support → School Adaptation	-.214	.028	-.270	-.158
	Smartphone Addiction → Teacher Support → School Adaptation	-.111	.014	-.065	-.009
	Smartphone Addiction → Peer Support →Teacher Support → School Adaptation	-.066	.009	-.085	-.048

 https://doi.org/10.23339/srj.2024.3.4.1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지지와 교사지지의 이중매개효과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에서 실시한 제14차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또한 SPSS Win 26.0 ver.을 사용하여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 SPSS PROCESS macro 4.2 ver.(6번 모델)을 적용하여 이중매개효과 분석을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친구지지, 교사지지, 학교적응의 상관관계는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 [3-6, 10-12]와 같은 맥락이다.

둘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친구지지와 교사지지를 경로해서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검증결과 친구지지와 교사지지의 이중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 [19-24]와 일부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학교적응 간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스마트폰 중독이 친구지지, 교사지지,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독이 심화되기 전에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 학교와 가정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건전한 사용 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하고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학교적응 지원을 위한 통합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친구지지와 교사지지가 스마트폰 중독과 학교적응 사이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는 온라인 상호작용에 치중된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를 오프라인으로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친구지지와 교사지지를 향상될 수 있도록 실천적 개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해야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과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되어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친구지지 강화를 위한 또래 멘토링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학교 내에서 또래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건전한 규범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협동학습이나 그룹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학생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교사-학생 관계 개선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시해야 한다. 교사들의 학생 이해 능력과 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의사소통 기술,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이 학생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상담 시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교사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횡단적 연구 설계, 자기보고식 측정 도구 사용, 전국의 모든 청소년에게 일반화하는 데 연구의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 설계, 다양한 측정 방법 활용, 질적

연구 병행, 추가적인 매개 변인 탐색,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연구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학교적응 향상을 위한 더욱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1]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2). A survey on smartphone overdependence in 2022. Korea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Promotion Agency. http://www.msit.go.kr

[2]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4). 2023 smartphone overdependence survey.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https://www.nia.or.kr/

[3] Jeon, H. S. (2023). A Qualitative Case Study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among Out-of-School Adolescent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3(2), 48-72. https://doi.org/10.15709/hswr.2023.43.2.48

[4] Chae, I. S., & Lee, S. J. (2022). The Effect of Adolescents' Smartphone Dependency on Cyber Delinquency: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Academic Helplessnes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3(3), 923-936. http://dx.doi.org/10.22143/HSS21.13.3.65

[5] Kim, J. S., & Baek, J. S. (2015). The Effect of Adolescents' Smartphone Addiction Level on School Life Adjustment. *Journal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13(1), 53-64. http://www.kyouth.or.kr/

[6] Kim, Y. M. (2020). The Effects of Adolescents' Excessive Smartphone Use on School Adjust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Contro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2), 479-494. https://doi.org/10.5762/KAIS.2020.21.2.479

[7] Kim, T. R., & Choi, Y. M.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Mental Healt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32(3), 185-210. http://dx.doi.org/10.18859/ssrr.2016.08.32.3.185

[8] Kim, Y. M. (2020). The Effects of Adolescents' Excessive Smartphone Use on School Adjust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Contro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2), 479-494. https://doi.org/10.5762/KAIS.2020.21.2.479

[9] Kim, T. R., & Choi, Y. M.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Mental Healt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32(3), 185-210. http://dx.doi.org/10.18859/ssrr.2016.08.32.3.185

[10] Kim, T. H., & Baek, H. G. (2016). The Effects of Adolescents' Smart Phone Addiction on School Adjustment: The Mediating Effect of Mental Health.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4), 147-156.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1400841250142.pdf

[11] Seo, I. G., & Lee, Y. S. (2016). Effects of Adolescents' Smart Phone Addiction on their School Adjustment: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8(3), 217-241. http://doi.org/10.19034/KAYW.2016.18.3.10

[12] Joo, S. J., & Cho, S. S. (2015). A Study on Smartphone Addiction of Adolescents: Focusing on Comparison of Influencing Factors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Game Addiction, and SNS Addiction.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7(4), 97-127. http://cafe.daum.net/youthwelfareorgPh.D. student

[13]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https://lchc.ucsd.edu/MCA/Mail/xmcamail.2012_11.dir/pdfYukILvXsL0.pdf

[14] Choi, M. K. (2014).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School Adjustment of Male and Female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2(6), 651-668. https://doi.org/10.6115/fer.2014.055

[15] Lee, H. Y. (1994). A Study on Adolescent Peer Culture. Seoul: *Korea Youth Development Institute*.

[16] Park, J. S. (2019). The effects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on aggression and impulsivity in adolesce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 and peer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HSS21)*, 10(3), 443-456. https://doi.org/10.22143/HSS21.10.3.31

[17] Kim, D. I. (2014). Smartphone navigation features addiction: Use of addiction risk aspects, symptoms, mainly the recognition of addiction. Forum Information and Culture Policy Research Reports, 257-283.

[18] Son, K. M. (2013). Online-offline interpersonal relationship tendencies according to smartphone addiction types of college students. Youth Culture Forum, 44, 71-78.

[19] Oh, M. S. (2013). The effects of teacher-student relationship and peer relationship on middle 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Regional Studies*, 21(3), 111-130.19

[20] Wentzel, K. R. (1998). Social relationships and motivation in middle school: The role of parents, teachers, and pee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0(2), 202-209.

[21] Song, Y. M., & Lee, H. C. (2011). An analysis of determinants of peer relationships among Korean adolescent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8(1), 91-112.

[22] Jung, K. S. (2004). The effects of social relational factors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6(1), 235-252.

[23] Seo, S. H. (2018). Neuroscientific interpretation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effect of teacher-student intimacy on school adjustment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4] Shin, K. W., et al. (2011). Development of smartphone addiction diagnostic scal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https://www.nia.or.kr/

[25] Kim, M. S., et al. (201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reativity competency indicators and measurement tool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plNum0=8733

[26] Lee, K. M. (2005). A study on the construct of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2), 383-39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123959

[27]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2nd ed.). Guilford Press

[28] Kline, R. B. (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Guilford Press

새론상담심리교육연구
The Journal of Saeron Counseling, Psychology and Education
Vol. 3, No. 4, pp. 21-32 https://doi.org/10.23339/srj.2024.3.4.21

대학생의 인권의식과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에서 성장마인드셋의 매개효과

서다혜[1]

[1]박사, 교육혁신처, 호서대학교, sdh3615@naver.com

The Mediating Effect of Growth Mindse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Dahye Seo[1]

[1]Dortor, Office of Educational Innovation, Hoseo Univercity, sdh3615@naver.com

초 록: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인권의식이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장마인드셋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자료는 충청남도 C시에 소재한 H대학교에서 유의표집을 통하여 선정된 대학생 300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자료는 SPSS PC+ Win ver. 25.0과 SPSS PROCESS macro ver. 4.2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권의식, 성장마인드셋, 진로결정효능감 간에는 정적인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인권의식과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에서 성장마인드셋의 단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성장마인드셋은 인권의식과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에서 단순 매개하였다. 따라서 인권의식이 성장마인드셋을 경유하여 진로결정효능감으로 가는 경로에서 성장마인드셋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진로결정효능감의 증가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핵심어: 인권의식, 성장마인드셋, 진로결정효능감, 대학생,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a growth mindse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human rights awareness and their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from 300 college students who were randomly selected from H University in C City, Chungcheongnam-do.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PC+ Win ver. 25.0 and SPSS PROCESS macro ver. 4.2.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rrelation analysi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mong human rights awareness, growth mindset, and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Second, Mediating effect analysis confirmed that a growth mindset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wareness and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Therefore,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verifies a new model that explains how human rights awareness influences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through a growth mindset.

Keywords: Human Rights Awareness, Growth Mindset,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College Students, Mediating Effect

Received 9 October 2024, Revised 22 November 2024
Accepted 28 November 2024
Corresponding Author: Dahye Seo
(Hoseo Univercity)
Email: sdh3615@naver.com
e-ISSN: 2951-259X

© Saeron Counseling, Psychology and Education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 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https://doi.org/10.23339/srj.2024.3.4.21

1. 서론

대학생 시절은 자신이 결정한 진로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자신의 전공하고 있는 분야의 지식을 익히고 졸업 이후에 사회 진출을 위해 취업에 대하여 고민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진로 발달을 위해 준비하는 시기이다. 진로 발달은 직업을 정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 중 하나가 바로 진로결정효능감이다[1]. 진로결정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에서 시작되었고[2],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적 신념을 의미하며[3], 자기효능감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선택하며 행동여부를 판단하여 개인의 정서적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4].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탐색활동 및 진로결정수준, 진로태도성숙[5], 전공에 관련한 직업체험[6]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으며 진로발달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7,8,9]. 즉,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탐색의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10], 진로결정효능감이 높으면 진로준비 및 진로결정을 보다 잘 하게 되고, 이와 반대로 진로결정효능감이 낮으면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된 행동과 과업을 회피하게 만들고 결국 직업을 제한적으로 선택하게 된다[1].

인권의식은 인권을 의식하며 존중 및 실천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받는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11,12],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의지를 포함한다[13]. 인권의식은 행동의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인권의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짐은 물론이고[14,15,16],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17]. 이처럼 인권의식이 진로발달에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인권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대부분이며[18,19,20], 그마저도 간호학[21], 교육학[16,22], 사회복지학과[23,24] 등의 인권의식을 요하는 일부 학과에 제한된 연구라는 한계점이 있다. 더욱이 진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진로결정효능감과 인권의식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으며, 유사한 연구로 인권의식 수준의 향상이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25,26]와 인권의식이 직업포부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는 연구가 있다[27,28].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룬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있으나 진로결정효능감과 인권의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성장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은 Dweck가 처음 사용하였으며[29],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신념과 생각에 의해서 동기화되는 부분이 있으며 예비 사회인인 대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장마인드셋에 주목하였다[30]. 성장마인드셋은 진로 목표 설정과 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31,32], 진로적응력과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33]. 이러한 성장마인드셋은 인권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34,35], 성장마인드셋이 높을수록 진로결정효능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28,32,36].

지금까지 고찰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인권의식이 성장마인드셋에 영향을 미치고, 성장마인드셋은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어 성장마인드셋이 인권의식과 진로결정효능감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한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 성장마인드셋이 이들 두 변인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19,33]. 따라서 본 연구는 인권의식이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장마인드셋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대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 증진을 위해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3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연구 변인인 대학생의 인권의식, 성장마인드셋, 진로결정효능감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대학생의 인권의식, 성장마인드셋, 진로결정효능감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성장마인드셋은 대학생의 인권의식과 진로결정효능감과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진로결정효능감: 종속변수

진로결정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과 진로결정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개념으로[2], 자신의 진로과정에서 필요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을 말한다. 즉,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확신성으로 정의된다[37]. 한편으로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와 관계된 과업 및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진로 목표 설정, 자기평가, 직업정보 수집, 계획 수립,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의 수준에 따라 진로선택이 결정된다고 하였다[38]. 진로는 개인의 흥미, 적성 그리고 능력에 따라 여러 경로로 설계가 가능하고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선택을 위해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진로결정효능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3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 정의하기로 한다.

2.2 인권의식: 독립변수

인권의 범주와 개념은 사회적・시대적 조건 속에서 규정되며, 인권의 개념을 창조해나가고 확장하는 역사 속에서 변화되어지고 풍부해진다. 이러한 인권의 특성으로 인해 개념을 정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40]. 인권의식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인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며 ‘의식’이란 역사적・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일이나 사물에 대한 개인적인 또는 집단적인 감정이나 견해 사상을 말한다[11]. 또한 인권의식은 자신 및 사회구성원들에게 부여된 다양한 인권에 대해 존중하고 이를 이해하며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토대로 인권을 침해받는 상황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타인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행동의지를 의미한다(김자영, 2012). 즉, 인권의식은 인권을 인식하고,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16,41], 이처럼 인권의식은 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기본조건이 되고[20], 사회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다양한 사회 문제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42]. 본 연구에서 인권의식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토대로 인권을 침해받는 상황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타인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행동의지’로 정의하기로 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의식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예비 교사[16,18,22], 예비 사회복지사[23,24] 등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외에도 인권의식과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인권의식이 상승할수록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6], 대학생의 생활양식이 인권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43]. 이처럼 대학생의 인권의식과 관련된 연구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인권의식을 요하는 교육학[16,22], 사회복지학[23,24] 등의 일부 학과에 제한되었다. 또한 인권 교육의 경험이 인권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들이 있는데, 대학생들의 인권의식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대학생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와 이를 발달시킬 수 있는 인권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44]. 다수의 연구에서도 인권 교육의 경험이 인권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8,19,20,21], 인권 교육의 목적이 인권의식 함양에 있다고 주장하였다[45].

인권의식과 진로결정효능감 관계에 관한 유사 연구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인식하는 인권의식이 진로장벽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46],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인권의식 수준의 향상되면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데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25,26]. 또한 학업 우수 여성 청소년은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에서 벗어나 인권의식이 직업포부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28,47]. 하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의식과 진로결정효능감의 두 변인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권의식이 진로결정효능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매개변인과 조절변인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며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나 역할을 통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2.3 성장마인드셋: 매개변수

마인드셋(mindset)은 성취가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지능과 능력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마음가짐을 의미한다[48]. 마인드셋은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선 개인이 타고난 지능 또는 능력이 바뀌기 어렵다는 마음가짐인 ‘고정마인드셋’과 개인의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마음가짐인 ‘성장마인드셋’으로 분류된다[49]. 즉, 성장마인드셋은 개인의 능력이 얼마든지 발전 가능하다고 믿는 심리적인 상태를 일컫는다[50]. 성장마인드셋을 가진 학생은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끊임없이 믿으며 도전하는 특성을 나타냈다[51]. 반면에 고정마인드셋을 가진 학생은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도 능력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며 도전을 두려워하면서 회피하는 태도를 나타냈다[52]. 이처럼 고정마인드셋을 가진 학생과 성장마인드셋을 가진 개인은 새로운 일을 하는데에 실패와 성공 및 포기와 도전과 같이 서로 다른 행동의 특성 등을 나타났다[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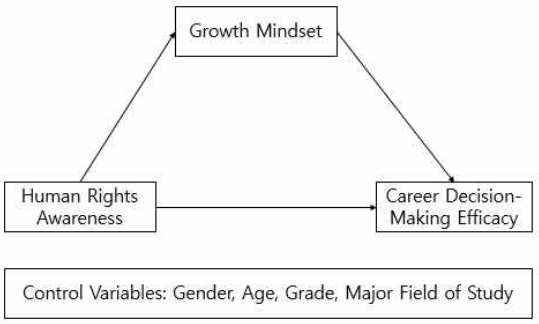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신념과 생각에 의해서 동기화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장마인드셋에 주목하였다[30].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성장마인드셋이 진로목표 설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31]와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32]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성장마인드셋이 매개역할을 하는 선행 연구로는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진로적응력의 관계 연구[30]와 대학생의 회피애착과 대학환경적응과의 관계에서는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3]. 또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신입생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성장 마인드셋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4].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인권의식이 성장마인드셋을 경유하여 진로결정효능감에 이르는 경로에서 성장마인드셋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Hayes(2017)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의 4번 모델을 적용하였고,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https://doi.org/10.23339/srj.2024.3.4.21



<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대상

본 연구 조사를 위한 대상 지역은 연구의 접근성과 연구 결과의 적용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의 C시로 임의 선정하였고, 조사대상은 남녀 비율과 학년을 고려하여 H대학의 재학생이며, 표집방법은 유의표집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 수의 산출은 G*Power analysis program 3.1.9.7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설문조사법을 활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인 성별, 연령, 학년, 전공 계열에 따른 분표는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성별은 여성의 비중이 76.0%로, 남성의 비중이 24.0%로 여성이 많았고, 연령은 20세가 38.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2세 이상이 26.0%, 21세가 20.7%, 19세가 14.7%의 순이었다. 학년은 3학년(27.3%)이 가장 많았고, 1학년(26.7%), 2학년(23.0%)과 4학년(23.0%)의 순이었다. 전공계열은 생명보건계열(29.3%)로 가장 많았고, 인문사회계열(28.7%), AI융합계열(13.7%), 공학계열(12.3%), 예체능계열(10.3%), 경영계열(5.7%)순이었다.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72	24.0
	Female	228	76.0
	Total	300	100.0
Age	19 years old	44	14.7
	20 years old	116	38.7
	21 years old	62	20.7
	Above 22 years old	78	26.0
	Total	300	100.0
Grade/Year	1st year	80	26.7
	2nd year	69	23.0
	3rd year	82	27.3
	4th year	69	23.0
	Total	300	100.0
Major Field of Study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86	28.7
	Business Administration Field	17	5.7
	Arts and Physical Education Field	31	10.3
	Engineering Field	37	12.3
	AI Convergence Field	41	13.7
	Life and Health Sciences Field	88	29.3
	Total	300	100.0

 https://doi.org/10.23339/srj.2024.3.4.21

3.3 측정도구

3.3.1 인권의식

인권의식 측정은 2016년 전주시 공무원 인권의식 조사에서 사용된 18개 항목의 측정도구로서 여성, 외국인, 노인, 청소년, 성소수자, 집회, 종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켜져야 할 인권 관련 질문으로 구성되었다[20]. 각 문항의 응답에 대한 범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인권의식의 합계 점수는 최소 1점에서 90점까지 분포하는데, 이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일반적인 인권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인권의식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09이었다.

3.3.2 성장마인드셋

성장마인드셋을 측정하기 위하여 Dweck[55]이 개발하고 이창식과 장하영[51]이 번안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하도록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지능의 변화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는 지능 마인드셋 4문항, 성격의 변화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는 성격 마인드셋 4문항인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 까지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성장마인드셋 척도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는 .79이었다.

3.3.3 진로결정효능감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들의 수행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Taylor와 Betz[38]가 개발한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단축형을 이은진, 이상희(2009)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4]. 이 척도는 미래계획, 목표설정, 직업정보수집, 문제해결, 자기평가 등 5개의 하위요인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효능감 척도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는 .947이었다.

3.4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PC+ Win ver. 25.0와 SPSS PROCESS macro ver. 4.2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 분석을 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알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들의 신뢰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 변인들이 조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변량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고, 사후검증은 Duncan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단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SPSS PROCESS macro 4번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검증은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였고, 신뢰 수준은 95%, 샘플 수는 5,000개로 설정하였다.

 https://doi.org/10.23339/srj.2024.3.4.21

4. 연구결과

4.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인권의식, 성장마인드셋, 진로결정효능감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그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인권의식, 성장마인드셋, 진로결정효능감 간에는 정적인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인권의식과 진로결정효능감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았고(r=.308, p<.01), 그 다음으로는 성장마인드셋과 진로결정효능감(r=.263, p<.01)이 높았고 인권의식과 성장마인드셋(r=.243, p<.01)의 상관계수가 세 번째로 높았다.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인권의식(M=3.2034), 성장마인드셋(M=3.7173), 진로결정효능감(M=3.4853)은 중간 점수를 상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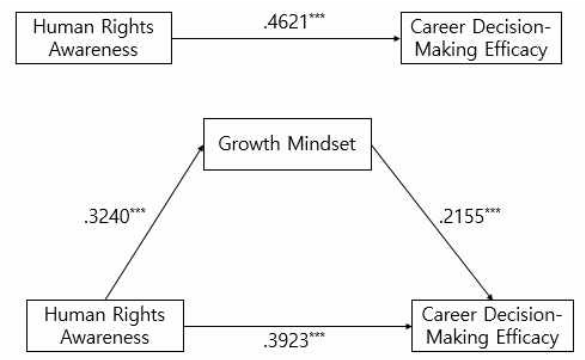
<표 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Category	Human Rights Awareness	Growth Mindset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Human Rights Awareness	1		
Growth Mindset	.243**	1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308**	.263**	1
M	3.2034	3.7173	3.4853
SD	.32608	.44790	.49455

**p<.01

4.2 인권의식과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에서 성장마인드셋의 매개효과

인권의식과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에서 성장마인드셋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이용하였고, 부트스트랩 샘플은 5,000개로 지정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는 <그림 2> 와 <표 3> 과 같다.



<그림 2> 성장마인드셋의 매개효과

 https://doi.org/10.23339/srj.2024.3.4.21

분석결과 인권의식은 성장마인드셋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3240, p<.001), 성장마인드셋은 진로결정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2155, p<.001). 또한 인권의식이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총 효과는 .4621(.2963 ~ .6279)이었으나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이 투입되면서 인권의식이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3923(.2246 ~ .5600)로 감소하였다. 인권의식이 자아존중감을 경유하여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부트스트랩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0698(.0206 ~ .1374) 간접효과가 검증되었다.

<표 3> 인권의식과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에서 성장마인드셋의 매개효과

Category		Mediation Model (Dependent Variable: Growth Mindset)			Dependent Variable Model (Dependent Variabl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oeffect	SE	t값	Coeffect	SE	t값
Constant		3.2190	.5689	5.6585***	1.9954	.6460	3.0888**
Independent	Human Rights Awareness	.3240	.0767	4.2232***	.3923	.0852	4.6040***
Mediator	Growth Mindset	-	-	-	.2155	.0629	3.4272***
Control Variable	Gender	-.1440	.0626	-2.3016	-.0376	.0681	-.5521
	Age	-.0091	.0234	-.3910	-.0301	.0252	-1.1912
	Grade/Year	.0094	.0298	.7532	.0550	.0321	1.7120
	Major Field of Study	-.0326	.0123	-2.6489	-.0032	.0134	-.2365

Category	Effect	SE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Total Effect	.4621	.0842	.2963	.6279
Direct Effect	.3923	.0852	.2246	.5600
Indirect Effect	.0698	.0298	.0206	.1374

**p<.01, ***p<.001

5. 논의 및 결론

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인권의식이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장마인드셋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권의식, 성장마인드셋, 진로결정효능감 간에는 정적인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은 인권의식이 성장마인드셋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34,35,56,57], 성장마인드셋이 진로결정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가 있다[32,36]. 둘째, 인권의식과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에서 성장마인드셋의 단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성장마인드셋은 인권의식과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에서 단순 매개하였다. 즉, 인권의식은 성장마인드셋을 통하여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매개변인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필요로 하는데, 이에 성장마인드셋의 단순 매개효과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인권의식과 진로결정효능감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유사연구로 인권의식과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16],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성장마인드셋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있다[58,59].

논의를 중심으로 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의식, 성장마인드셋, 진로결정효능감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성장마인드셋은 인권의식과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었다.

연구의 결론을 중심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인권의식과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에서 관련 변인들의 관계와 역할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았고, 진로결정효능감의 증가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 결과에서는 도출된 매개변인인 성장마인드셋을 활용한 실천적인 진로결정효능감 증가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시급하며 인권의식과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를 설명해줄 다른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함과 동시에 이러한 연구에서도 성장마인드셋이 보호나 통제 변인으로 대안 역할을 하는지 검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인권의식이 성장마인드셋을 경유하여 진로결정효능감으로 가는 경로에 진로결정효능감의 증가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ferences

[1] Cho, S. Y., & Moon, M. R. (2006).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a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nhancement program for adult stud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8(4), 731-748.

[2]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

[3]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26-339.

[4] Lee, S. S., & Jung, C. Y. (2007). Causal model of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39(4), 83-109.

[5] Kim, Y. K. (2008). The effect of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new university students on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4), 1191-1210.

[6] Cho, A. M. (2001). The effect of career-related vocational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in adolescent (guidance) maj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9-46.

[7] Lee, G. H., & Lee, H. J. (2000). A study on the self-efficacy effect as a predictor variable for the degree of career attitude maturity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2(1), 127-136.

[8] Lee, E. K., & Lee, H. S. (2002).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attitude maturity.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4(1), 109-120.

[9] Cho, A. M. (2000). The factors influencing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maturity in adolescents: Focused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ducational Research, 38(4), 43-62.

[10] Betz, N. E., & Vo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2), 179-189.

[11] Kim, H. S. (2013). The effect of human rights awareness on intercultural sensitivity. Journal of Legal Education Research, 8(1), 81-110.

[12] Lickona, T. (1996). Eleven principles of effective character education. Journal of Moral Education, 25(1), 93-100.

[13] Dumbar, E., Blanco, A., Sullaway, M., & Horcajo, J. (2004). Human rights and ethnic attitudes in Spain: The role of cognitive, social status, and individual difference fac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9(2), 106-117.

[14] Jung, S. W., & Hyun, S. S. (2012). The effect of youth students' human rights experience on self-esteem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Youth Protection Research, 18, 69-89.

[15] Jung, J. G. (2002). The recognition of student adolescents' human rights situation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student human rights declaration. Journal of Children's Rights Research, 6(1), 89-108.

[16] Cho, H. Y. (2018). The effect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human rights awareness on human rights respect and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9), 1-18.

[17] Shin, E. K. (2010). The effect of gender role identity and gender equality awareness on career-related variable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18] Moon, M. H. (2006).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a human rights awareness program for pre-service teachers: Based on the four components of moral development in Rest's mode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Research, 20(2), 341-362.

[19] Lee, S. M. (2000). An experimental study on cognitive and emotional factors of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 Hwang, D. J., Song, H. Y., & Kim, S. H. (2015). The effect of human rights education on adolescents' human rights awarenes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Youth Studies, 22(10), 77-100.

[21] Hong, S. W., Kim, J. S., & Hyun, H. J. (2011).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human rights awarenes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1(6), 260-269.

[22] Kim, G. S., & Hong, S. W. (2019). The effect of human rights awareness,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multicultural teaching efficacy on multicultural education competency i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4), 137-157.

[23] Kim, S. Y. (2015). The level of human rights awareness in pre-service social workers and the factors influencing it: Focusing on the differences between social work majors and non-major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32, 281-301.

[24] Hyun, A. N. (2018). The classification of latent profiles for pre-service social workers' human rights awareness and the verification of influencing factors.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42, 1-29.

[25] Koo, S. H. (2006). The effect of gender-equal career education program on career awareness and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cused on rural areas. Master's thesis, J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6] Park, S. J. (2007). The effect of gender-equal career education program on career role stereotypes and career maturit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27] Hwang, D. Y. (2009). A model verification of career aspirations and gender role socialization in academically successful female adolescent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8] McWhirter, E. H., Hackett, G., & Bandalos, D. L. (1998). A causal model of the educational plans and career expectations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gir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2), 166.

[29] Dweck, C. S. (2012). Mindsets and human nature: Promoting change in the Middle East, the schoolyard, the racial divide, and willpower. American Psychologist, 67(8), 614.

[30] Lee, J. Y. (2022). The mediating effect of growth mindse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adaptability: Focusing on college students. Career Education Research, 35(1), 41-56.

[31] Kim, H. K., Park, E. K., Lee, H. J., & Yang, J. W. (202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students' career choice competencies test based on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Career Education Research, 36(3), 41-63.

[32] Kim, B. H., Hong, S. K., & Ha, M. S. (2019).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growth mindset,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in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25), 33-59.

[33] Park, S. D., & Yang, S. J. (2020).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and mastery goal orient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ssion mindset and career adaptability in adult-entry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Youth Studies, 27(6), 183-213.

[34] Kim, S. W., & Jung, E. K.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power distance belief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mediating effect of person-organization fit and the perception of supervisor fairness.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25(4), 1-25.

[35] Kim, H. N. (2020). The effect of power distance belief in university students on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help-seeking, critical thinking, and integrative thinking. Journal of Youth Culture Studies, 28(2), 1-30.

[36] Baek, S. Y., Lim, H. J., & Ryu, J. J. (2020). A meta-analysis of growth mindset and learning-related variables. Asian Education Research, 21(2), 641-668.

[37] Park, G. N. (2018). The effect of self-esteem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9), 1143-1162.

[38]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39] Han, J. S. (2019). The effect of career and motivational enhancement group counseling on learning motiva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academic probation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24), 253-272.

[40] Lee, Y. G., Cheon, J. W., & Kim, K. J. (2009). Youth human rights and participation. Paju: Yangseowon.

[41] Kim, J. Y. (2012).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types of human rights awareness in adolescents. Journal of Civil Youth Studies, 3(1), 5-40.

[42] Cheon, J. W. (2015). A structural analysis of adolescents' human rights awareness: The influence of human rights respect, human rights education, discrimination experiences, and self-esteem. Journal of Future Youth Studies, 12(4), 1-23.

[43] Kim, S. M., & Nam, J. Y. (2014).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style and human rights awareness in late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Welfare Studies,

16(4), 173-193.

[44] Lee, S. M. (1999). A study on the development trends of human rights awareness: Focusing on death penalty, torture, disability, and euthanasia. Human Development Studies, 6(2), 103-140.

[45] Ko, H. R., & Choi, Y. J. (2021). Expert awareness and practice typology of school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boundary of inside and outside of school. Journal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Studies, 25(2), 79-93.

[46] Jung, S. Y., & Kim, M. K. (2022). The effect of social stigma in out-of-school youth on career barriers through self-resilienc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3(3), 471-483.

[47] Park, J. M., & Hong, S. W. (2015). The effect of gender equality awareness on career values and career maturity in middle school students. Proceedings of the Family and Quality of Life Conference, 288-288.

[48] Zhu, H., Baumann, A., & Lichtenstein, G. (2019, July). Full Paper: Assessment of Entrepreneurial Mindset Coverage in an Online First Year Design Course. In 2019 FYEE Conference.

[49] Shin, H. J. (2020). The effect of mindset on self-resilience and dance ability achievement in dance major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50] Yeager, D. S., & Dweck, C. S. (2012). Mindsets that promote resilience: When students believe that personal characteristics can be developed. Educational Psychologist, 47(4), 302-314.

[51] Lee, C. S., Yoo, E. K., & Jang, H. Y. (2019). The moderating effect of growth mindse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abuse experiences and school adaptation in adolescent girl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11), 297-303.

[52] Burnette, J. L., O'Boyle, E. H., VanEpps, E. M., Pollack, J. M., & Finkel, E. J. (2013). Mind-sets matter: A meta-analytic review of implicit theories and self-reg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39(3), 655.

[53] Lee, S. K. (2023). The relationship between avoidant attachment, growth mindset, and college environmental adaptation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Asia-Pacific Convergence Research, 9(3), 507-519.

[54] Chae, W. Y. (2022). The effect of growth mindset and teacher support on school life adaptation in nursing college freshmen during the COVID-19 era. Journal of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39(6), 802-811.

[55] Dweck, C. S. (2006). Mindset: The new psychology of success. Random House.

[56] Lee, M. H., & Park, W. H. (2018). An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self-advocacy in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Disability and Lifelong Education, 4(1), 123-156.

[57] Jeong, C. W., Kim, R. N., Lee, K. E., & Hwang, K. W. (2016). Teachers and character education. Paju: Educational Science Publishing.

[58] Kim, J. W. (2022). The effect of protean career attitude of lifelong education instructors on job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commitment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growth mindset. Doctoral dissertation, Hanseo University Graduate School.

[59] Park, K. O. (2022). The effect of traumatic experiences in high school students on flourishing: The dual medi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growth mindset. School Counseling and Sandplay, 5(3), 64-82.

새론상담심리교육연구 제3권 제4호

인 쇄 | 2024년 12월 31일
발 행 | 2024년 12월 31일
발행인 | 이창식
편집인 | 이창식•신은미•장하영

발행처 | 새론상담심리교육학회
우 편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의향로 267. 202호
전 화 | 010-4001-8712
Homepage | www.saeronpub.co.kr
E-mail | saeronjournal@gmail.com

(비매품)

